



‘제1차 여성불자 108인’ 등에도 선정된 바 있는 불자탈랜트 김용림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 지으세요”

10월 6일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 초가를 바람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다. 창가쪽에 강의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김용림씨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드리니 현대불교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 15주년기념 축하 사인을 부탁했다. “나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시더니 몇 줄을 써내려 가신다. 사인을 받아두고 돌아서자 밀폐감치 않아서 바라만 보던 보살님들이 용기가 나셨는지 종이와 수첩을 들고와 사인부탁을 하신다. 사인을 받고 소녀처럼 좋아하는 보살님들과 함께 (사)저희로운영여성이 주최하는 ‘부처님마음으로 행복가정만들기’ 강의가 시작됐다.

부러지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진심이 닿아서 언젠간 부처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어요.

#가족의 신행생활

언젠가 목아박물관장 박찬수 선생님이 직접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선물 받았어요. 그 부처님은 세민스님이 점안식을 해주셔서 집에 모시고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삼배만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방 옆을 지나가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식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며 발원문 읽는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진실 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자식이 안 될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행365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중환 부처님과 인연에 참 감사했죠. 물론 청취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한 마디라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행365일 진행을 맡은 것을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방송가의 종교편향!

지금 방송국은 양쪽 갈래로 나뉘져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주 들게 되죠? 그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어느 해부터인가 그런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만, 그런데 시상식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

“ 불자들도 똑심 있게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부모가 열심히 신행하면 자식 부처님 품으로 ”

또 하나의 신행생활은 불교방송국이 개국했을 때부터 진행해온 ‘신행365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신행365일’을 진행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법문은 ‘사람은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십주경(十住經) :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십지품(十地品)만을 따로 번역한 경>에 나와있습니다.

‘사람은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부모의 유전자로 탄생을 하지만 ‘사람 됨됨이는 부모를 보면서 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자식교육을 시켜야 함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스스로 열주 돌리는 모습이 자식에게 공부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식 혼낼 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듣니” 하잖아요? 이거 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님·부처님께 감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을 타면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가톨릭 배우들은 드라마를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불자연예인들은 수가 많아도 결코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불자들이 점점아셔도 있지만 방송가에 기독교PD들이 많습니니다. 어떤 기독교PD는 다른 사람 다 써도 불자는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배우들이 배역에서 손해볼 보기 때문에 결의로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PD는 한 불자인 작가와 드라마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일요일이면 작가에게 교회 가라고 안부를 해서 몇 번은 갔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그 작가가 지쳐서 그만 둔 일도 있습니다. 저도 그 PD와 친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자인 것이 알려져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기자의 약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도 밖으로 좀 내보여야 해요. 우리 불자들도 똑심이 있어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점잖아서 ‘나를 닦기 위한 종교’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정당한 몫을 챙길 줄도 알아야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모두가 화합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 실천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불심이 돈독하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지만 저희 가정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좋은 환경인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깨장’을 찾아서 거기를 다녀 왔더라고요.

‘깨장’이 뭔가하면 ‘깨달음의 장’이라고 해서 정토회(법륜 스님)에서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뿐만 아니라 정토회는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깨달음의 장, 문경으로 닷새 갔다 왔는데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 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자기 스스로 왜 울었는지 모르게 새벽에 세 시간 동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거기 가서 부처님 가피를 받았대요. 혹시 집에 자녀분 중에 화합이 안 된다든가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가 있으면 꼭 보내주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에 가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냥 저희들이 열심히 할 뿐이었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품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았어요. 일이 고되고 몸이 힘들니까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정말 어느날 부턴가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다녔어요. 매사가 감사해요. 제가 타고난 음성들을 나누면서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부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박재원 기자



부처님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김용림씨 가족. 오른쪽부터 남편 남일우, 며느리 김지영, 김용림, 아들 남성진, 딸린트 가족이다.

#우리 가족 이야기

저희 친정집이 한옥이었는데 구조상 한옥에 기도방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이면 다락에 올라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니다. 새벽에 좀 더 자고 싶는데 어머니가 <천수경>을 읽으시니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시집가야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은연중에 저도 많이 익혀 졌나봐요. 어머니가 초파일이나 백중 때 가실 때면 새벽에 일어나 목욕재계 하시고 하얀 모시 치마 저고리를 걸친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미선스님을 나왔어요. 사춘기 땀 주일학교에 나가서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불교)이야말로 진정 내 종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저는 남일우씨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동료였어요. 제가 KBS성우 4기, 남편은 3기였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 물어본 것

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었는지 남편도 불교집안이였죠.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외아들이라 친정어머니 반대가 심했어. 그때 유명한 점집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는 곳마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청량사란 절이었는데 남편 생일 때면 절에서 떡도 해 올리고 말입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탈랜트 김지영)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지영이가 예의도 바르고 버릴 데 하나 없이 좋은아이인데 종교가 걸리더라고요.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른 건 안 된다고 반대했더니, 아들이 “그건 저 하기 나름”이라고 해서 믿고 결혼 시켰어요.

아직 종교가 다르지만 며느리가 절에도 따라오고 제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와서 상도 차리고 절도 하는데 그렇게 할 거 다 하니까 교회까지 말란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똑

현대불교신문 15th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그대 그리운 날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장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중회의원, 숭가대학 이사
- 선운사 분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중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 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사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 「생사, 「어둠을 비칠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 「반야실경, 「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